

핀테크 협력·비대면 확대... 지방은행, '디지털 강화' 올인

5대 지방은행 지방소멸 위기 대응 적자점포 줄이고 비대면영업 강화 피움랩 등 핀테크 플랫폼과 손잡고 신규고객 유치·브랜딩 강화 집중

주요 지방은행이 '디지털 역량'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지방 소멸 위기로 수익성이 악화한 점포 영업 대신 온라인 영업의 비중을 확대하고 있는 것. 외부 채널과의 연계 확대하고, 핀테크 기업 육성을 지원해 자체적인 디지털 역량 확보에도 집중하는 모습이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지방은행(부산·iM·경남·광주·전북)은 디지털 채널 확보와 핀테크 플랫폼과의 협력에 힘쓰고 있다. 수익성이 떨어지는 점포 영업 대신 비용 대비 수익성이 높고 영업 구역의 한계가 없는 비대면 금융의 비중을 높인다는 전략이다.

이현승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국내 지방은행 점포 수는 총 911개로, 이 가운데 적자 점포 비중은 48%에 달했다. 이는 같은 기간 적자 점



황병우 DGB금융 회장(첫번째줄 왼쪽 네번째)과 '피움랩' 6기에 선정된 기업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지난 2019년 출범한 '피움랩'은 지방금융 최초의 핀테크 육성 프로그램이다. /DGB금융

포 비중이 6.2%에 불과했던 4대 시중은행(신한·KB국민·하나·우리)과 크게 비교된다.

올해 7월에는 지방은행의 적자 점포 비중이 17.6%까지 줄었지만, 같은 기간 점포 수도 111개 줄었다.

점포 수가 감소했음에도 대출 규모는

크게 늘었다. 5개 지방은행의 원화대출금 총액은 지난 2020년 말 기준 약 155조5000억원에서 2023년 말 194조2000억원까지 증가했다. 이는 지난 2020년 코로나19 당시 비대면 금융 보급에 따라 비대면 대출이 빠르게 성장했기 때문이다.

지방은행은 아직까지 자체적인 디지털 역량이 시중은행이나 인터넷전문은행보다 열세인 만큼, 디지털 영업 확대를 위해 외부 플랫폼과의 협력과 더불어 자체 채널 육성과 투자에 집중하고 있다.

iM뱅크는 지난 10월 간편송금 플랫폼 '토스'와의 업무 협약을 통해 디지털 채널 확대 및 브랜딩, 신규 고객 유치에 나섰다. 토스는 국내 간편송금 점유율 1위 플랫폼으로, 디지털 금융 이용률이 높은 2030 세대의 토스 앱 사용률은 85%에 육박한다.

아울러 iM뱅크는 지주사인 DGB금융의 자체 핀테크 육성 프로그램 '피움랩'을 통해 육성된 핀테크 기업과의 연계를 통해 '숨은 보험금 찾기', '비대면 금 거래' 등 서비스를 도입 중이다.

광주은행은 지난 9월 토스뱅크와의 협업을 통해 은행권 최초의 '공동대출' 상품을 출시했다. 기존 은행의 안정적인 자금력 및 신용평가 모델과 인터넷전문은행의 전문성을 결합해 경쟁력이 높은 상품을 공급한다는 전략이다.

전북은행은 지난해부터 대출 비교 플

랫폼 '핀다'와의 협력을 통해 햇살론을 비롯한 정책금융 상품 취급에 힘쓰고 있다. 올해도 카카오뱅크와의 협업을 통해 광주은행에 이은 '금융권 2호' 공동 대출 출시를 준비 중이다.

같은 BNK금융그룹 소속으로 전략적 일치도가 높은 BNK부산은행과 BNK경남은행은 핀다, 네이버페이, 더핀 등 다양한 외부 플랫폼에서 주담대·신용대출·소액대출 상품을 적극 공급하고 있다.

지주사인 BNK금융 차원에서 지난해 핀테크 육성 플랫폼 '스토리지B'를 출범했다. '스토리지B'의 회차별 모집 규모는 지방금융이 운영하는 핀테크 랩 중 최대 규모다.

한 지방은행 관계자는 "지방은행은 자금 및 인력 투자가 많고 계열사와의 협력도 용이한 시중은행, 디지털 전문성이 높은 인터넷전문은행과 비교해 디지털 역량에서 열세에 놓일 수밖에 없다"며 "외부 채널과의 협력을 통해 판로를 확대하는 한편, 자체 역량 강화에도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metroseoul.co.kr

6주 연속 기름값 상승... 주유 할인카드 '필수템' 부상

신한 '딥오일', 주유비 10% 할인 현대 '에너지+카드', M포인트 적립 하나 '원더리빙카드', 10% 할인

이달 정부가 유류세 감면 폭을 낮추면서 연료비 부담이 커지는 추세다. 기름값이 6주 연속 오른 만큼 카드업계는 유류비 할인 카드 이용을 권장한다. 특히 서울은 전국에서 기름값이 가장 비싼 만큼 주유 카드가 필수란 조언이다.

25일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 따르면 서울의 휘발유 평균 가격은 리터(1)당 1703.21원이다. 전국 평균(1637.18원) 대비 4% 비싸다. 휘발유 가격은 지난달 정부의 유류세 감면 조치에 1당 1653원까지 내려갔다. 그러나 국제 유가가 오른 데다 정부가 유류

세 인하 조치를 완화하면서 또다시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같은 기간 서울의 경유 가격은 1당 1506원에서 1555원으로 49원 올랐다.

한동안 국제 유가는 오름세를 지속할 전망이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격화 이슈와 함께 석유수출국기구(OPEC)가 석유 생산량을 줄이기로 합의하면서다. 통상 국제유가 변동 추이는 2~3주 후 국내 시장에 적용된다. 다음해 정부의 유류세 감면 조치가 추가로 완화되면 유가 상승 속도가 가파를 것이라 관측이 지배적이다.

카드업계는 주유 카드를 사용하라고 조언했다. 주유뿐 아니라 생활영역에서 할인 혜택을 이용할 수 있는 만큼 '일석이조'다. 주유카드는 전월 실적

일반 신용카드 대비 낮고 폭넓은 혜택을 적용하는 만큼 알뜰한 소비를 꾀할 수 있다.

신한카드의 베스트셀러 주유 카드는 '딥오일(Deep Oil)'이다. 주유 이용금액의 10%를 할인한다. 사전에 정유사 4곳 중 한 곳을 선택해야 하며 1회 변경할 수 있다. 스피드메이트와 주차장 이용금액도 10% 절감할 수 있다.

이어 신한카드의 '하이 포인트(Hi-Point)' 또한 소비자들의 러브콜을 받았다. 연회비가 1만5000원이며 주유 영역에서 1당 60원을 할인한다.

한 정유업체 관계자는 "화물복지카드를 제외한 단일상품만 놓고 보면 이달 주유 승인금액이 가장 높은 신용카드 1위와 2위는 신한카드 상품이다"라

고 귀띔했다.

주거지 인근 GS칼텍스가 있다면 있다면 현대카드의 '에너지플러스카드'에 디전3'를 눈여겨볼 만 하다. 결제금액을 M포인트로 적립한다. 바로주유 서비스 결제 시 1당 150M포인트, 실물 카드로 결제 시 1당 80M포인트를 제공한다. M포인트는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비씨카드는 이달 가계 부담을 낮출 '마카오카드'를 공개했다. 7만원 이상 주유하면 10%를 할인한다. 이 밖에도 마트와 온라인쇼핑몰에서도 최대 10% 청구할인 혜택을 적용했다. 월 최대 2만 5000원까지 할인 혜택을 적용하며 연회비는 1만2000원이다.

하나카드의 흥행상품은 '원더 리빙

카드'다. 주유 금액의 10%를 월 최대 1만2000원까지 할인 적용한다. 알뜰주유소와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에도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아파트관리비와 택시업종도 10% 할인한다. 월 최대 7만4000원까지 절약할 수 있다.

삼성카드의 '삼성 ID 에너지카드'는 주유소에서 1만원 이상 결제 시 1만원 할인을 월 3회, 총 3만원까지 지급한다. 고속도로 통행료와 대중교통, 주차장과 대리운전도 10% 할인한다. 이어 거주지 인근 에쓰오일이 있다면 '마이 에쓰오일 삼성카드'를 이용하면 된다. 주유 금액을 전월 실적에 포함하고 10% 할인을 누릴 수 있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주유비는 사실상 고정비로 분류되는 만큼 카드사 입장에서 경쟁적으로 뛰어드는 분야"라며 "고유가 시대 주유 카드는 필수"라고 말했다.

/김정산 기자 kimsan119@

고분양가에도 입지만 좋으면 완판행렬

분양가상한제 해제·공사비 급등 전국 아파트 분양가 신기록 경신 수도권도 국평 분양가 10억 넘어

분양가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전국에 광범위하게 적용되던 분양가상한제 지역이 대폭 해제된 것과 공사비 급등이 맞물린 결과다.

수도권에서도 '국민평형'인 전용면적 84㎡의 분양가가 10억원 이하로는 찾아볼 수 없게됐고, 알짜 입지들은 고분양가 논란이 일던 곳도 청약경쟁률이 두 자릿수를 웃돌며 완판 행렬이 이어졌다.

25일 청약홈에 따르면 안양 호계운천 재개발사업에 들어서는 '아크로 베스티뉴'의 1순위 청약 경쟁률은 평균 5.66

대 10이다. 특별공급을 제외한 217가구에 총 1299명이 접수했다. 최고 경쟁률은 59㎡B 타입으로 19.29대 1을 기록했다. 분양가는 주변 시세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전용 84㎡가 최고가 기준 15억7440만원이며, 59㎡도 10억8950만원으로 10억원을 넘어섰다. 안양에서는 역대 최고 분양가로 아크로 베스티뉴가 들어서는 호계동에서는 신축도 84㎡가 최고 11억원 안팎에서 거래되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평균 한자릿수 경쟁률은 미계약이 일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입주 전까지 완판(완전 판매)은 문제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과천은 물론 경기도 전체로도 분양가가 사상 최고였던 '프레스티어자



안양에 들어서는 '아크로 베스티뉴' 투시도. '국민평형'인 전용면적 84㎡의 분양가가 15억원을 웃돌았다. /DL이앤씨

이' 역시 전 가구가 완판됐다.

과천주공 4단지를 재건축해서 들어선 프레스티어자이는 최상층 복층을 제외하면 전용 84㎡의 분양가가 22억원 안팎이므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강남 분양가와 비슷한 상황이었다.

프레스티어자이는 지난달 정당계약에서 대부분 계약을 완료했고, 일부 부적격자 등의 물량 역시 이달 예비당첨

자 대상으로 진행된 계약에서 모두 팔렸다. 계약자의 90%는 이상은 과천 거주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주 청약을 진행하는 '서울원아 이파크' 역시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는 비싸지만 광운대역세권 개발사업 등 입지나 호재를 감안하면 오히려 합리적이라는 분위기다. 노원구 월계동에 들어서는 서울원아이파크의 분양가는 전

용 84㎡가 최고가 기준 14억원이다.

수도권은 물론 전국적으로도 분양가는 매달 역대 최고가를 경신 중이다.

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월 기준 전국 아파트 분양가는 3.3㎡당 평균 2041만원으로 지난 2021년 736만원이나 올랐다. 전용 84㎡를 기준으로 보면 분양가 상승폭이 3년 만에 약 2억 5000만원에 달한다.

같은 기간 서울은 3.3㎡당 2657만원이 올라 전용 84㎡ 한 채에 9억원 이상 뛰었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2022년 부동산 불황과 함께 분양가까지 치솟으면서 청약 수요의 움직임이 크게 둔화됐지만 지금 와서 보면 그때 분양 받은 사람들이 승자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분양가는 유례없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며 "내년에도 추가적인 분양가 상승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